

# 연기금 따라 투자했더니... 한달 수익률 코스피 2배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종목 선택  
한달간 네이버 1154억 최다 순매수  
LG전자, 포스코케미칼 등 뒤이어  
매수 상위 20종목 상승률 10.36%

지난 3월 중순부터 시작된 증시상승 랠리를 수익률 제고 기회로 삼지 못했던 연기금이 이번엔 달라진 모습이다. 횡보 국면에 접어들던 증시에서 수익률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장기 투자에 따른 수익 극대화를 노리는 개인투자자라면 연기금의 포트폴리오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연기금이 집중 매수하는 종목이 유효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기금은 최근 한 달 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 네이버를 가장 많이 사들였다. 1154억원 어치를 담으며 순매수 상위 종목 1위에 올랐다. 이어 LG전자(770억원), 포스코케미칼(745억원), SK하이닉스(726억원), 삼성물산(711억원), SK이노베이션(56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연기금이 가장 많이 담은 상위 20개 종목을 분석해본 결과 한 달간 평균 상승률은 10.36%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지난 한 달간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종목 주가 추이〉

종목(매수금액)	5월 29일	6월 30일	등락률(%)
네이버(1154)	22만6000	26만7000	18.14
LG전자(770)	5만9300	6만3200	6.57
포스코케미칼(745)	5만5500	7만5100	35.31
SK하이닉스(726)	8만1500	8만5100	4.41
삼성물산(718)	9만9100	11만6000	17.05
SK이노베이션(566)	11만8500	13만1000	10.54
카카오(482)	26만3500	26만7500	1.51
삼성바이오로직스(427)	62만2000	77만5000	24.59
기업은행(410)	8280	8080	-2.42
더블유게임즈(357)	6만7000	7800	19.1

/한국거래소

코스피 상승률(3.87%)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20개 중 16개가 플러스 수익이었다. 연기금은 대표적인 기관투자자로서 분산 투자 효과를 노리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

가장 많은 수익을 안겨준 종목은 순매수 순위 3위에 오른 포스코케미칼이었다. 지난 5월 말 5만5500원을 기록했던 포스코케미칼은 지난 30일 7만5100원에 거래를 끝냈다. 무려 35.31% 올랐다. 하반기 전기차 시장 성장에 대

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요 고객사의 중대형 배터리 생산량이 늘어나고 핵심 성장 동력인 에너지 소재 사업부의 고성장이 전망된다는 평가다. LG화학(25.60%), 삼성바이오로직스(24.59%), 하이트진로(21.66%) 순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연기금은 ‘포스트 코로나’로 대표되는 언택트(비대면·Untact) 종목을 비롯해 2차전지주 등을 주로 담았다. 이 전략은 향후에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에 따른 주가 회복세 둔화가 업종별 수익률 차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2차전지 등 미래 성장주를 조정시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

수익률에서 가장 큰 손실이 난 것은 LG유플러스(-7.23%)였다. 나머지 3개는 모두 은행주가 차지했다. 우리금융지주(-3.51%), DGB금융지주(-2.86%), 기업은행(-2.42%) 주가가 떨어졌다.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때문에 은행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은행주 급락과 국내 증시 약세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반대로 순매수 상위 20개 종목의 지난 한 달간 평균 수익률은 -0.39%를 기록했다. 삼성전자(2456억원), 삼성SDI(1078억원), 셀트리온(849억원), 포스코(713억원), 아모레퍼시픽(710억원) 순으로 팔아치웠다. 20개 종목 중 13개가 같은 기간 주가 하락을 겪었다.

건설과 철강, 자동차 등 대형 경기민감주를 매도했다. NH투자증권(-15.01%)에 이어 수익률 손실이 크게 난 고려야연(-11.38%)을 비롯해 롯데케

미칼(-11.18%), S-Oil(-10.19%), 현대중공업지주(-10.06%), 현대건설(-3.37%), 포스코(-3.87%) 등 손실을 본 대다수 종목이 경기민감주였다.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번지며 호텔과 면세 업종도 크게 하락했다. 이 기간 강원랜드(-11.16%), 호텔신라(-10.36%), 신세계(-10.00%) 등이 하락했다. 해당 종목 모두 연기금 순매도 순위 상위에 올랐다.

종목 선택이 어렵다면 연기금의 포트폴리오 구성안을 벤치마크로 삼을 수 있다. 지금처럼 주도주 색채가 뒤바뀌는 순환매 장세에서 연기금의 매매동향이 주식시장 방향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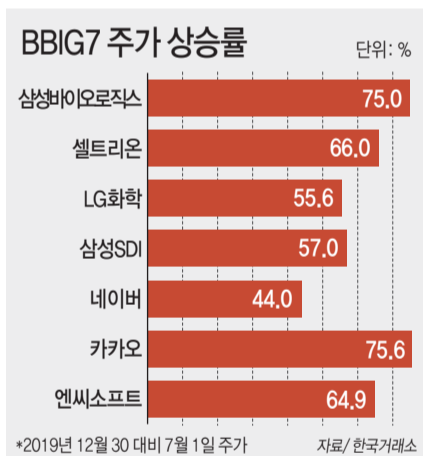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크(PB)는 “연금 특성상 장기적인 수익률을 내야 하기 때문에 안정성에 무게를 두는 분산투자가 첫 번째”라며 “합의된 표준안을 바탕으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조절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연기금보다 부족한 수준이지만 국민연금은 1988년 이후 평균 5% 중반대의 수익률을 내왔다”고 설명했다.

/송태화기자 alvin@metroseoul.co.kr

## 코로나發 급변동 장세, BBIG 韓증시 주도

(바이오·배터리·인터넷·게임)

바이오·언택트 종목 집중  
BBIG7 시총 16.3% 차지



다. 유가증권시장 시총에서 7곳이 차지하는 비중은 16.3%에 달한다.

바이오 대표 종목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스피 시장 시총 50조원을 넘어섰고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에 힘입어 수혜주로 떠올랐다. 삼성SDI와 LG화학은 2차 전지주로 불리며 테슬라 상승분으로 인한 수급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 오는 코로나19 사태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겨난 비대면(언택트) 대표 종목이다. 대표적인 게임주인 엔씨소프트도 강세다.

반면 작년 12월 30일 기준 시가총액 10위권에 머물던 현대차, 현대모비스, 포스코 등은 모두 주도주에서 밀려났다.

신승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위기 이후 경기 부양책, 사회 현상 변화에 따른 수혜가 BBIG7 업종에 집중됐다”며 “특히 글로벌 정부 정책 수혜, 여기에 지역 간 이동 제한이라는 특수성이 더해지며 언택트 기

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BBIG7이 3분기에도 주도주가 될 가능성도 커졌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10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며 경기회복 지연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이 나와야 세계 경제가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자금이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바이오·언택트 종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신 연구원은 “이번 사이클에서 BBIG7 주도주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주도주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SK이노베이션 등 IT·자동차 등 업종 대표주를 통한 포트폴리오로 시장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 LH 한-베트남 경협 산단 2개구역 개발계획 승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29일 해외진출 희망 기업 지원을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경협산단) 조성사업 407만㎡의 개발계획을 베트남 정부로부터 최초로 승인받았다고 2일 밝혔다.

승인된 구역은 흥옌성 산업도시 내 LH의 사업참여가 예정된 3개 대상지(클린산단 143만㎡, 산단1구역 264만㎡, 도시구역 378만㎡) 중 클린산단, 산단1 구역으로, 이번 인·허가 승인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입국제한 등의 리스크를 극복하고 이뤄낸 값진 성과로 평가된다.

한-베트남 경협산단 조성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이자 작년 11월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당시 양국 정상이 합의한 국가적 경제협력 프로젝트다.

이번 개발계획 승인에 따라 LH는 클린산단 구역을 시작으로 산단1구역·도시구역을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 현지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하고 내년 상반기 조성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베트남 경협산단은 하노이 중심으로부터 남동쪽 약 30km에 위치한 2645만㎡ 규모의 흥옌성 산업도시 내 조성되며, 하노이~하이퐁 간 고속도로와 인접해 인근 국제공항 및 항만으로 1시간 이내로 접근 가능하고, 배후로는 삼성, LG 등 한국 기업들의 생산시설이 위치함에 따라 기존 공장들과의 시너지 또한 창출할 수 있어 투자여건이 우수하다.

/정연우 기자 ywj964@

## 정영채 “책임 피할 생각없다... 정리하는게 우선”

(NH투자증권 사장)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책임 밝혀지면 자리 연연 없을 것”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사태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고객이 손해를 봤다”면서 “우리가 좀더 완벽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 안타까움이 있다”고 했다. 그는 “책임이 밝혀지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 사장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신관에서 열린 SK바이오팜 상장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판매사 입장에서 역을 할 측면이 있지만 고객이 더 역

을 할 것”이라며 “펀드 판매 시스템이나 사모펀드 관련 제도 미흡 등 구조적인 측면에서 안타까운 점이 있다”고 했다.

그는 “(옵티머스 사태는) 도의적인 문제와 법리적 문제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괴리가 많다”고 했다.

이어 “금감원에서 제시한 사모펀드 판매 기준에서는 판매사가 판매한 것 내용을 점검해도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우리는 매달 사모펀드 잔고를 확인하고 운용내역을 제시하지 않는 운용사는 펀드를 팔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해 왔다”며 “법리적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손님(투자자)이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그는 “판매사가 부담해야 할 고통을 피할 생각은 없다”면서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게 그만두는 것이라면 오히려 속이 편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선) 고객이나 조직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정 사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 “그러나 제가 해야 할 일은 (이 사태를) 정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환매중단 고객에 대한 선보상과 관련해 그는 “내부적으로 정리가 될 때 있다”며 “대표이사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관련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전체 판매의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85.86%에 달하는 4528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한국투자증권은 577억원, 케이프투자증권 146억원, 대신증권 45억원, 한화투자증권이 19억원을 판매했다.

/박미경 기자